

효성, 대한유화 지분 6.87% 매각

효성은 보유하고 있던 대한유화의 지분 6.87%를 247억원에 전량 매각했다고 12월11일 발표했다.

효성은 SK텔레콤과 KTF 보유지분 0.03%, 0.07%도 각각 44억원에 처분했다.

효성은 “신규사업 추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”고 설명했다.

<화학저널 2006/12/12>